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EUROPE

유럽 권역 물류 시황 분석

보고기간 10/12~10/18

1. 유럽 항만 물동량 및 경쟁력 변화

2.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투자 확대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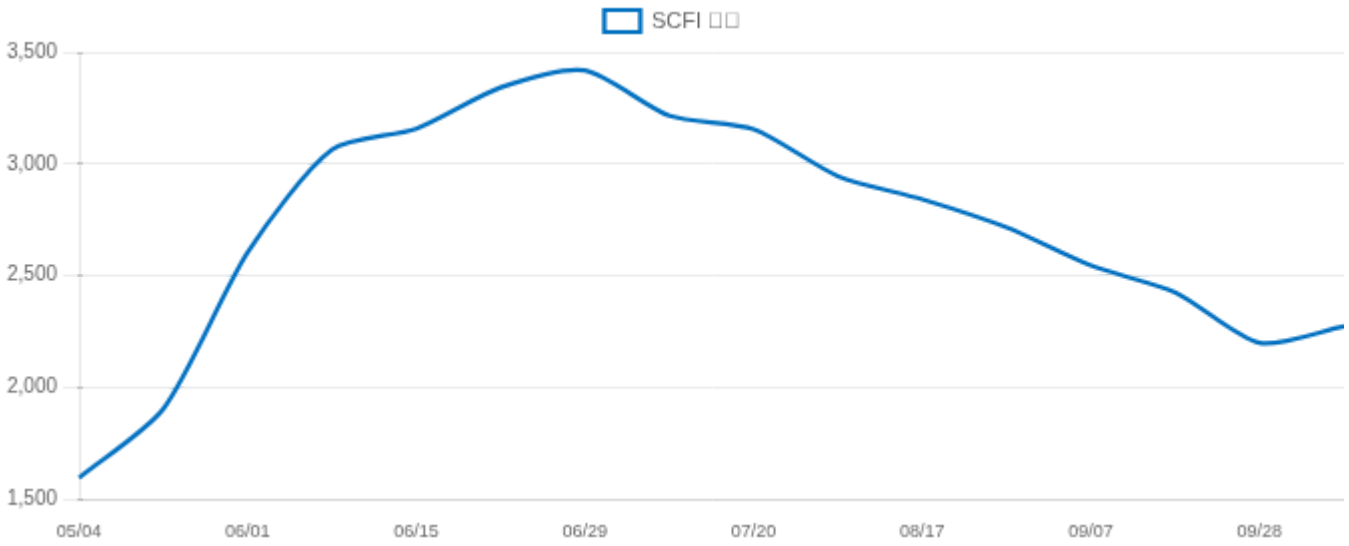
종합

이번 주 유럽 물류 부문은 항만 경쟁력 재편과 아프리카 투자 확대라는 두 축의 흐름이 두드러졌음. 로테르담의 성장세가 정체된 가운데 영국 항만이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으로 주목받으며 EU ETS 회피 의혹까지 제기됨으로써 유럽 내 항만 간 경쟁 구도가 변화하는 모습임.

영국 항만의 급성장은 환경 규제가 물류 흐름에 실질적 영향을 미친 사례로 평가되며, 향후 유럽연합의 탄소 규제 강화에 따라 항만 간 물동량 쏠림 현상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음. 한편 DHL의 대규모 아프리카 투자는 유럽 물류 기업들이 신흥 시장 물류망 선점에 나서는 신호탄으로 해석되며, 이는 유럽 물류 산업의 글로벌 전략 재편으로 이어질 전망됨.

운임 지표

지수 · 항로	최신값	기준(월/일)	WoW	MoM
SCFI 유럽	2,274 $/TEU	10/05	+3.4%	-10.6%
KCCI 북유럽	3,431 $/FEU	10/12	-3.5%	-18.1%
KCCI 지중해	3,730 $/FEU	10/12	-2.0%	-19.5%



자료: freight_indices (Shanghai SCFI · KCCI) · 기준 10/05

유럽 항만 물동량 및 경쟁력 변화

> **유럽 항만 물동량에서 로테르담은 석탄·원유 중심의 소폭 성장에 그친 반면, 영국 항만은 런던 게이트웨이 확장으로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증하며 EU ETS 회피 목적의 화물 전환 의혹을 받고 있음.**

2026년 1~9월 로테르담항 물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한 3억 2,320만 톤을 기록함. 증가는 석탄, 기타 건화물, 원유, 석유제품이 주도했으며, 철광석·고철, 곡물, LNG, 기타 액체화물, 컨테이너(톤 기준), 브레이크벌크는 감소하거나 정체됨. 이는 유럽 최대 항만의 물동량 성장이 에너지·원자재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을 보여줌.

영국 항만은 2025년 컨테이너 처리량이 전년 대비 11% 증가한 60만 TEU 추가를 기록함. 증가분의 약 85%가 런던 지역에 집중됐으며, 이는 2024년 말 DP월드 런던 게이트웨이 제4선석(3억 5,000만 파운드, 약 4억 6,500만 달러 투자) 개장에 따른 처리능력 확대가 주된 원인임. 실제로 런던 게이트웨이 터미널의 2025년 처리량은 전년 190만 TEU에서 52% 증가한 300만 TEU 이상을 기록함.

EU는 영국 항만의 컨테이너 물동량 급증이 EU 배출권거래제(ETS) 비용 회피를 위한 화물 전환 때문이라고 의심하고, 스페인 EU ETS 관측소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반회피 조치를 검토 중임. 그러나 영국항만협회(BPA)는 이를 반박하며, 런던 게이트웨이 확장, 선사 네트워크 재편, 상업적 경쟁 등이 더 설득력 있는 설명이라고 주장함. EU의 반회피 조치가 시행될 경우 영국 터미널에 대한 수십억 파운드 투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이러한 변화는 유럽 항만 간 경쟁 구도를 재편하고 있음. 로테르담은 전통적 강점인 벌크 화물에서 완만한 성장을 유지하지만, 컨테이너 부문은 상대적으로 부진함. 영국은 대규모 터미널 투자로 컨테이너 처리 능력을 확충하고, EU 규제로 인한 비용 부담을 회피하려는 선사들의 대체 기항지로 부상함. 이에 따라 향후 EU와 영국 간 탄소 규제의 불균형이 항만 선택에 미치는 영향과 EU의 대응 정책이 주요 관전 포인트가 됨.

- 2026년 1~9월 로테르담항 물동량 3억 2,320만 톤, 전년 동기 대비 0.9% 증가
- 로테르담 증가 요인: 석탄, 기타 건화물, 원유, 석유제품
- 2025년 영국 항만 컨테이너 처리량 전년 대비 11% 증가, 60만 TEU 추가
- 영국 컨테이너 증가분의 약 85%가 런던 지역에서 발생, 런던 게이트웨이 처리량 52% 급증
- EU ETS 회피 의혹과 영국항만협회의 반박, EU의 반회피 조치 검토

전망

로테르담항은 벌크 화물 중심의 완만한 성장세를 유지하겠으나, 컨테이너 부문의 경쟁력 회복이 과제로 남음. 영국 항만은 처리능력 확대로 단기적으로 물동량 증가가 지속될 수 있지만, EU의 반회피 조치 도입 여부와 강도에 따라 성장세가 조정될 가능성이 있음. EU-영국 간 탄소 규제의 조화 여부가 향후 유럽 항만 물동량 분포에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임.

시사점

화주 — EU ETS 회피를 위한 영국 항만 우회가 단기적 비용 절감에 도움이 될 수 있으나, EU의 반회피 조치로 인한 통관·물류 지연 리스크를 고려해야 함.

포워더 — 영국 항만 처리능력 확대를 활용한 경로 다변화 전략이 필요하지만, EU 규제 변화에 따른 운영 복잡성 증가에 대비해야 함.

항만·선사 — 영국 항만은 EU와의 규제 격차를 활용해 물동량을 유치할 수 있으나, 장기적 투자 안정성을 위해 EU와의 협력이 필요함. 선사는 기항지 선택 시 탄소 비용과 항만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함.

참고자료: PortSEurope, Rotterdam port traffic rises 0.9% in Jan-Sept 2026 on coal and oil · Splash247, UK ports hit back at Brussels over ETS diversion claims (검색일: 2026-10-18)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투자 확대

> **DHL 익스프레스가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3억 유로를 투자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아프리카 물류 네트워크 투자 확대가 본격화되고 있음.**

DHL 익스프레스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의 장기 성장 잠재력을 높이 평가하며 2030년까지 총 3억 유로(약 4,400억 원)를 투자할 계획임. 이번 투자는 영국-아프리카 간 교역액이 지난해 약 520억 파운드(690억 달러)에 달하는 등 아프리카의 교역 규모가 확대되는 가운데 발표되었음.

이러한 투자 확대는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지정학적 긴장, 전통적 소싱 및 수출 시장에 대한 재평가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함. 특히 중국의 아프리카 내 무역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고, 영국 기업들에게 공급망 다변화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DHL은 아프리카 시장의 전략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음.

DHL의 대규모 투자는 아프리카 물류 인프라 개선과 배송 네트워크 확충을 통해 역내 전자상거래 및 B2B 물류 수요에 대응할 것으로 예상됨. 또한 다른 글로벌 물류 기업들의 아프리카 시장 진출 및 투자 경쟁을 촉발시키는 신호로 작용할 가능성이 큼.

- DHL 익스프레스, 2030년까지 아프리카에 3억 유로 투자 계획.
- 2025년 영국-아프리카 교역액 약 520억 파운드(690억 달러) 기록.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CEO, 투자 이유로 대륙의 장기 성장 잠재력과 공급망 다변화 필요성 언급.
- DHL 영국 CEO, 중국의 아프리카 무역 확대 속 영국 기업의 기회 상실 경고.

전망

아프리카 물류 시장은 향후 10년간 연평균 두 자릿수 성장이 예상되며, DHL의 투자를 시작으로 주요 물류 기업들의 인프라 구축 및 현지 파트너십 체결이 가속화될 전망임. 다만 정치적 불안정, 통관 절차의 복잡성, 열악한 운송 인프라 등 리스크 요인이 여전히 존재하여 투자 성과는 지역별로 차별화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아프리카로 수출입하는 기업들은 물류 서비스 개선으로 리드타임 단축과 비용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며, 공급망 다변화 차원에서 아프리카 시장 진출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

포워더 — 글로벌 물류 기업의 아프리카 네트워크 강화는 현지 파트너십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경쟁 심화로 인한 마진 압박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항만·선사 — 아프리카 항만 및 물류 인프라에 대한 투자 확대는 항만 처리능력 향상과 정기선 서비스 증편으로 이어져 선사들에게 신규 노선 개발 동기를 부여함.

참고자료: The Loadstar, DHL Express puts its faith – and its cash – in Africa's trade potential (검색일: 2026-10-18)